

[로그인](#) [회원가입](#)[BTN바로가기](#) [BTN온에어](#) [편성표](#)**BTN 뉴스**
오전 7:00, 10:00 / 저녁 7:00, 10:00

검색 할 기사를 입력하세요.

[종단](#) [포교](#) [문화](#) [사회](#) [신행](#) [전체뉴스](#) [실시간뉴스](#) [포토뉴스](#) [행복한불서](#) [이슈&피플](#) [세계불교](#) [전국](#) [날짜별뉴스](#)

최종편집 : 2021.10.15 금 10:50 (불기 2565년)

[ARS 060-800-7000](#) [BTN 정기후원하기](#)[HOME](#) [실시간뉴스](#)

국보 제301호 화엄사 영산회괘불탱 진본 모시고 코로나 종식 발원

김민수 기자

승인 2021.10.03 12:16

댓글 0



수려하고 인자한 모습의 부처님이 화엄사에 나뉘자 도량은 환희심으로 가득 찹니다.

국보 제301호 화엄사 영산회괘불탱입니다.

높이 12미터 너비 8미터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로 짜임새 있는 구도와 은은한 색채 등 17세기 중엽 걸작 불화로 꼽힙니다.

1653년 화엄사를 중창한 벽암 각성대사가 임진왜란 당시 희생당했던 이들의 넋을 달래는 수록재를 지내기 위해 조성했습니다.

지금껏 화엄사는 가을 축제에 모사도인 영인본을 3일간 공개했는데 올해는 원본을 모셨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선조들이 그러했듯 코로나19 종식과 삼보사찰 천리 순례단의 무사 회향을 발원하기 위해 덕문스님이 특별히 진본 공개를 결정한 겁니다.

덕문스님 / 구례 화엄사 주지

전체뉴스

[2021년 10월 15일 전체뉴스](#)[2021년 10월 14일 전체뉴스](#)[2021년 10월 13일 전체뉴스](#)[2021년 10월 12일 전체뉴스](#)[2021년 10월 11일 전체뉴스](#)

인기뉴스



관음종 부산 무문홍법사 강제집행 과정에서 불상 훼손 당해



진관사 찾은 팬수 "내면 진심 깨달아"



무문홍법사 강제집행 과정에서 불상 훼손



해동용궁사, 조계종 화엄사 말사로 등록

수덕사승가대학장 역임 밀양 무이정사 주지 무이 부스님 입적



"종교화합 저해 가톨릭 성지순례 길 중단해야"



운허스님과 당대 고승 자료 한 자리에

(모사도만 전시를 하거나 일반인들에게 공개했었는데 이번에 보존처리를 다 마친 후에 외부에서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는 것은 아마 처음이지 않겠는가. 좀 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위안을 주기 위한 마음으로 괘불재를 봉행하게 됐습니다.)

화엄사 선다회 회원들이 정성껏 만든 차와 여섯 가지 공양물을 올렸고 조계종 어산 어장 인묵스님 집전의 불교 전통 의식도 봉행했습니다.

축제 이틀째를 맞아 화엄사를 찾은 방문객들은 괘불 부처님과 귀한 인연 맺음에 감사했습니다.

정지영 / 진주시 상대동

(좋은 행사를 접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특히나 이렇게 국보를 오늘 직접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너무 오늘 행운인 것 같습니다.)

걷기를 시작으로 가을 밤 영화 감상과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을 맞이한 화엄사.

코로나 종식을 괘불 부처님께 발원하며 힘든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BTN뉴스 김민수입니다.

김민수 기자 btnnews@btn.co.kr

BTN 뉴스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윗

좋아요 0개

김민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나랏말싸미 7) 한글날과 신미대사

삼보사찰 천리순례단 법보종찰 해인사 도착

(삼보사찰 천리순례 7) 종교지도자들도 격려

문화재관람료 "통행세"..정청래에 사과 요구

(삼보사찰 천리순례 9) 빗줄기 뚫고 구법 행선



(나랏말싸미 7) 한글날과 신미대사

기사 댓글 0개

전체 보기

기사의견을 등록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0/300

✓ 등록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BTN소개](#) | [찾아오시는 길](#) | [사업안내\(광고/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독자투고](#)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불교텔레비전(주) | 제호 : BTN불교티브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265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84
등록일 : 2007년 12월 27일 | 발행인 : 구본일 | 편집인 : 남동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호성 | 전화번호 : 02-3270-3385
BTN불교TV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콘텐츠 문의 : 02-3270-3385)
Copyright © 2021 불교텔레비전(주)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